



서른일곱번째 이야기

나는 빛진 자입니다.

[2023 BEE Korea 비전]

조문상 BEE Korea 사무총장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빛”을 “남에게 갚아야 할 돈”, “갚아야 할 은혜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합니다. 즉 “나는 빛진 자”는 “나는 무엇인가를 갚아야 하는 채무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 가지 빛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갚아야 할 빛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빛과 갚는 방법

성구	빛	갚는 방법
롬 1:14-17	복음의 빛	복음을 전함 주신 사역을 이행함
마 18:21-35	용서의 빛	용서
롬 13:8	사랑의 빛	사랑을 베풀

첫째, 우리는 복음을 빛졌습니다. 2023년 주제 말씀인 로마서 1:14에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고 합니다. 사도는 이어지는 구절 (15절)에서 그 빛이 무슨 빛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를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은 값없이 복음을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모두가 복음이라는 빛을 졌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빛은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사도가 말하듯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므로 갚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용서를 빛졌습니다. 마태복음 18:23부터 예수님은 예화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예화에서 만 달란트 빛진 자가 자신의 빛을 탕감받았지만, 자신이 탕감받은 빛의 1/600,000인 백 데나리온 빛진 자를 만나 빛을 모두 갚도록 요구합니다. 이 예화의 시작(18:21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과 끝(18: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은 이 예화가 용서에 관한 이야기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의 빛을 졌고 우리에게 용서 받을 짓을 한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이 빛을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사랑을 빚졌습니다. 로마서 13:8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라고 하며 사랑의 빚에 대해 언급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빚을 유일하게 성도 간에 저도 되는 빚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습니다. 그리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넘치게 깨닫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다른 성도로부터 사랑을 받기보다는 다른 성도에게 사랑을 베푸는 데 마음을 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빚진 자입니다. 복음과 용서와 사랑이라는 빚을 졌습니다. 그것도 만 달란트같이 어마어마한 양의 빚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용서하고, 아무리 사랑을 베푼다고 이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백 데나리온 같이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 애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제 생일에 볼펜을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펜인데 그나마 잘 나오지를 앓았습니다. 그래도 그 보잘 것없는 펜이 제게는 그 어떤 명품 펜보다도 귀했습니다. 그 펜의 외형적 값보다 그 펜을 선물한 아이의 마음을 아니까요. 하나님에 대해 사무엘상 16:7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광대함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며, 정말 어렵지만, 발버둥 치면서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미약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약한 몸부림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2023년에는 우리가 진 빚에 감격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를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주신 사역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또한 계산하지 말고 사랑을 베푸십시오. 왜?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BEE 소식

1. 2023년 “빚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빚을 갚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헬라어나 아만이나 자혜 있는 자나

여러섬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롬1:14).”

2. ‘BEE오는 수요일’은 추운 겨울을 지나 BEE 가족의 따뜻한 소식을 모아모아 3월 1일(수)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